

기사입력 2014/12/08 16:44

인쇄하기

NAKS(재미한국학교협의회) 학술대회 내년 여름 뉴욕서 개최



8일 뉴저지주 해켄셔의 버겐카운티 법원 앞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기림비를 찾은 최미영 회장(왼쪽 세 번째) 등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임원들이 김동석 상임이사(맨 오른쪽) 등 시민참여센터 관계자들과 자리를 함께했다.

"한국학교에서 '가나다라...' 만 가르칠 것이 아니라 위안부 피해자 등 올바른 역사를 가르쳐야 합니다."

내년 7월 16일부터 18일까지 뉴저지주 티넥의 메리엇호텔에서 개최될 '제33차 재미한국학교협의회(NAKS) 학술대회' 홍보차 8일 뉴저지를 찾은 최미영 NAKS 총회장의 다짐이다.

이날 팰리세이즈파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최 총회장은 "22년 만에 뉴욕 일원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대회는 각 한국학교 교사들이 한글을 가르치는 것을 넘어 한인 후세들에게 왜곡되지 않은 옳은 역사와 문화를 가르치는 것을 기치로 삼을 것"이라고 말했다.

14개 협의회에서 6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인 이번 학술대회에는 각 협의회별 우수 교사 40여 명이 강사로 나서 전체 분반 강의를 맡는다. 한국에서도 강연자들이 초청될 예정이다.

김경옥 재미한국학교 동북부협의회 회장은 "교사들이 한인 후세들을 위한 더욱 확실한 교수법을 익혀 갈 수 있는 최고의 학술대회를 만들기 위해 임원들이 힘을 합쳐 최선을 다할 것"이라고 강조했다.

황주영 기자 sonojune@koreadaily.com